

한창희 관찰기¹⁾

201321812 사회학과 한창희

목차

- 들어가며 - 관찰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 1장 - 내 고향 플럼 섬의 '염소 종족'
- 2장 - 부자 마을 리버사우스의 '공작새 종족'
- 3장 - 돌아온 워터루트에서 만난 '돌고래 종족'
- 마치며 - 내 종족은 무엇인가?

들어가며, 관찰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풀어 놓기에 앞서, 이 관찰기를 읽게 될 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찰 기간에 이룩한 파격적인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 관찰기가 출간된다면 누군가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누군가는 의구심을 품을 것이며 누군가는 강한 반발심을 표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²⁾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우리가 모두 같은 종족에 속한다고 교육을 받아 왔으며 그 말에 아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 나 또한 15세가 되던 해까지는 모두가 같은 종족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이들과 내가 다르다는 점을 느꼈고, 이후에 이 나라에는 수많은 종족이 증명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적어도 십 수 개의, 많으면 수 십 개의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른 신체의 구조상 특징을 지녔고, 성격이 상이하며, 치장하는 모양, 살아가는 방식 등이 모두 다르다. 많은 이들은 내 주장에 거부감과 의구심이 들 것이다. 그러나 각자 주변을 살펴보면, 인물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신체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종족의 태생적인 차이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분석해 내지 못했던 이 나라의 수많은 다툼과 갈등을 설명하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종(異種)과 뒤섞여 살면서도 그 차이점을 쉽사리 눈치 채지 못 하는 것일까? 관찰기를 쓰며 가장 고민한 대목이다. 나의 발견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왜 그동안 나와는 달리 종족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앞서 말했던 어린 시절의 교육 때문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모두가 단일 종족이라고 교육한다. 이는 국가 내부적으로 같은 종족이라는 소속감 아래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종족과의 관계에서 폐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교육 때문에 우리는 감히 종족의 다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는 종족보다 중요한 분

1) 제목과 내용은 '파브르 곤충기'와 '걸리버 여행기'를 오마주한 픽션임을 미리 밝힌다.

2) 대한민국, 학자 노르트르 베버가 19세기에 본인의 저서에서 조선을 표현한 관용구에서 착안하였다.

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최고 교육기관인 '유니브³⁾'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피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나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의 의복을 부여 받는다 상위 레벨에 속하는 '유니브'에서 공부한 국민은 하얀색 의복을 하사받고 마치 귀족과도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조금 낮은 유니브 출신이거나 혹은 유니브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은 파랑색 혹은 분홍색 의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의복은 머리 아래, 발 위까지 덮여있으며 의복의 색깔에 따라 치장하는 장신구와 삶의 패턴이 바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 년의 대부분을 이 의복을 입고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겉으로 보기에 의복 색깔의 차이만 느낄 뿐, 종족의 차이를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관찰기는 종족이라는 개념의 발견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생물학적 문화기술지(에스노그라피)에 가깝다. 그러나 8년동안 그다지 많은 지역을 방문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나의 발견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수의 귀납적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수뇌부와 현제도 속에 깊이 찌들어 사는 많은 이들은 비록 당장은 내 발견을 부정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분명 어느 굴지의 유능한 과학자가 나의 발견을 뒷받침할 생물학적 연구를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 또한 관찰을 거치며 종족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했을 뿐더러 자연과학자가 아니다. 때문에 내가 발견한 세 가지 종족의 생물학적 특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관찰기에서는, 지금까지 삶에서 만난 세 가지 종족의 특성을 기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통해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이 관찰기를 읽고, 저마다의 문화기술지를 만들어 수많은 종족을 기록하고 정리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관찰자가 되어서, 집단지성을 통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수많은 종족이 모두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지도, 관찰기에 등장하는 곳을 확대하였다.

3) 대학교

1장, 내 고향 플럼 섬의 ‘염소 종족’

관찰기에 서두에는 내가 관찰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워터루트⁴⁾ 중심부에서 태어나 5살이 되던 해 워터루트 변방에 위치한 플럼 섬⁵⁾으로 이주하였다. 워터루트 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대 도시이지만 내가 자란 플럼 섬은 아주 외따로 떨어져 있다, 게다가 워터루트 시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며 사방이 물⁶⁾로 둘러싸여 있기 다른 마을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때문에 나는 성장과정에서 다른 마을의 이들을 거의 마주하지 못하고 자랐다 이는 훗날 내가 관찰을 하며 다른 마을 이들에게 커다란 이질감을 느끼고 그들이 다른 종족임을 눈치 챌 수 있던 이유 중 하나이다.

15세가 되던 해, 나는 플럼 섬의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 챘다. 내 주변 또래들 중에서 몇몇 이들은 머리에 뿔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팔다리가 길어졌고 덩치가 커져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뿔을 한껏 치장하고, 적극적인 어필을 하기 시작했다. 뿔이 돋아난 이들은 주류 집단을 형성했고, 나는 어느새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 있었다. 그들보다 훨씬 체구가 작고 남성성이 부족했으며, 이성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결정적으로 나는 뿔이 돋아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와 뿔이 돋지 않은 다른 이들이 열등한 종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이것이 단순히 우열의 차이가 아닌 종족의 차이라는 점을 알아챘다. 나는 짧은 표현으로 부모님께 뿔이 없는 나와 그들의 차이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부모님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며 나를 크게 나무랐다. 이후로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 때부터 나는 공책에다 종족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관찰기는 당시부터의 기록들을 상당부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맨 처음 나는 내 자신을 객관하기 위하여 뿔이 난 이들과 다른 나만의 특징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계산과 생각이 빨랐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비록 운동 능력은 떨어졌으나 언어적인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두드러졌다. 나의 장점을 알게 되자, 뿔이 난 이들이 형성한 주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짜냈다. 내 특징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고, 결국 그들에 눈에 들어 뿔이 없음에도 주류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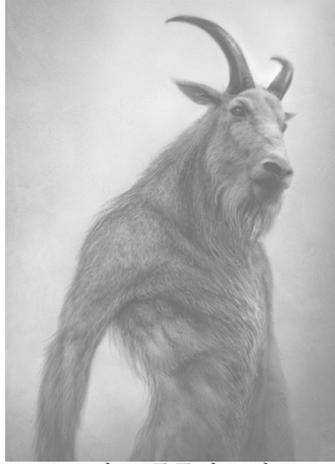
동경하는 집단에 들어가고 나서도, 당연히 그들과 내가 다른 종족이라는 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멋진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을 때는 매우 행복했으나 그 기쁨은 매우 잠시였다. 내부자가 되어 관찰한 그들은 그야말로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몹시도 비열한 종족이었다. 외면적으로 그들은 마치 전사가 투구를 쓴 듯 위용 넘치는 모습이었다. 또한 서로 간에 우애가 넘쳐나고 의협심이 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달랐다. 멋진 외모와는 다르게 질투심이 엄청났고 매우 소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무리에서 한명이 보이지 않으면 그를 홍보기에 바꿨고 특히 신체 능력에 관하여 몹시 깎아내렸다. 맘에 드는 이성이 겹칠 경우 그들은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다. 그들이 비열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앞에서는 서로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들이 외관상 멋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추악한 행태를 보여주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간에 비난도 하지 않았다.

4) 수원,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여 직역한 것이다.

5) 호매실동, 매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Plum에서 착안한 것이다.

6) 호매실동은 서수원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된지 20년이 조금 넘었다. 또한 얼마 전까지도 사방이 논으로 둘러 쌓여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 같은 수원이지만 아주대학교 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옹졸한 행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들 집단의 평판을 해치는 일로 여겼다. 내부가 텅 텅 빈 모래성처럼, ‘주류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 종족의 무리는 안에서부터 처참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 염소 종족의 모습.

내가 20세가 되어 플럼 섬에서 떠나기 전까지,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성숙해지기는커녕 더욱 더 옹졸해져만 갔다. 화려한 뿔을 가졌지만 질투심 많고 비열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염소들과도 같았다. 특히 수컷 염소들이 암컷을 놓고 거칠게 싸우는 것처럼 그들은 아름답고 고상한 뿔을 고작 이성에 대한 경쟁에만 사용하였다. 나는 그들을 훗날 ‘염소 종족’이라고 명명하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찰한 종족인 그들은 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더군다나 20세까지 플럼 섬에만 갇혀 저 비열하고 추악한 종족을 수도 없이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웠다. 나는 점차 다른 종족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갔다. 염소 종족은 분명 나와는 다른 종족이었고 비슷한 구석이 없었다. 20세가 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훗날 하얀색 옷을 입기를 바라셨고 때문에 ‘유니브’에 가기를 원하였다. 내 친구들인 염소 종족은 유니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따라서 나는 플럼 섬의 내 또래 중 유일하게 유니브에 가기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 섬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 부모님은 이 나라의 수도인 ‘소울’⁷⁾로 보내서, 공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

2장, 부자 마을 리버사우스의 ‘공작새 종족’

나는 공부를 위해 플럼 섬을 떠나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수도인 소울, 그중에서도 리버사우스 마을⁸⁾로 떠났다. 이곳에는 유니브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기관인 ‘아카데미’⁹⁾가 존재했다. 평생을 플럼 섬에서 살아온 내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 이 마을로 떠나게 됐을 때 두려움이 컸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나와 비슷한 새로운 종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가득했다. 리버사우스는 수도인 소울 중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 마을이었다. 처음으로 아카

7) 서울, 영어 Seoul과 Soul이 비슷한 데에서 착안하였다.

8) 강남,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여 직역한 것이다.

9) 내가 다녔던 재수학원을 표현한 것이다.

데미에 당도하여 만난 또래들은 나에게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았다. 나는 우선 외지인으로서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 공작새 종족의 모습.

그들은 확실히 염소 종족과는 달랐다. 기골이 장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체구를 지녔고 몸에는 깃털이 가득했다. 그 자신도 깃털이 있었지만 따로 구입한 값비싼 깃털들로 몸을 잔뜩 치장하였다. 덕분에 그들은 온갖 색깔을 띄웠고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화려했다. 염소 종족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그들의 뿔만을 갈고 닦았다면, 리버사우스의 종족들은 온 몸 전체를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화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몹시 독특했다. 그들은 허영심이 넘쳤고 도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또한 서로에 치장에 대하여 몹시 비난하고 질타하였다. 잘 치장하지 못하거나 저렴한 깃털로 장식한 이들에게는 온갖 창피를 주었다. 그들은 화려함을 뽐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공작새의 모습, 그 자체였다. 나는 그들을 훗날 ‘공작새 종족’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카데미에는 소울 각지에서 모인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리버사우스나 그 근교 출신이 아니면 따돌림과 동시에 무리로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하여 내 자신을 최대한 내려놓았다. 플럼 섬에서 떠나올 당시, 나는 조금이나마 염소 종족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짜 뿔을 달고 있었는데, 그들의 까다로운 취향에 벗어날까 이를 벗어 던졌다. 처음에는 나를 괘시하던 그들은 나의 순진해 보이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오히려 귀여워 해 주었다. 이로써 나는 이 곳에서도 주류 무리에 들 수 있었다. 처음에는 관찰을 위해 그들 무리에 들어가 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친밀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는, 염소 종족보다는 그들에게 정이 가기 시작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종이였지만, 그들은 겉으로 허영심이 넘칠 뿐 염소 종족처럼 비열하지 않았다. 친해지고 난 뒤에 몇몇 공작새 종족은 나에게 깃털을 모두 벗은 모습도 보여 주곤 했는데, 그 모습은 오히려 염소 종족보다는 나와 더 비슷한 생김새였다. 그들은 공격적이었지만 솔직하였다. 그들 종족과 함께 보낸 기간 동안, 나와 다른 이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솔직함이 주는 매력과 장점을 알게 되었다.

아카데미에서는 약 1년간 공부를 했고, 결국 난 유니브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공작새 종족들에게 연민과 매력도 느꼈지만, 그들의 허영심에 이끌리 난 상태였고, 그들과는 다른 유니브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부모님이 너무나도 그리웠기 때문에 내 고향 워터루트에 위치한 유니브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염소 종족과는 마주치지 않기 위해 워터루트 내에 플럼 섬과 최대한 먼 곳에 위치한 곳에 거처를 구했다.

3장, 돌아온 워터루트에서 만난 ‘돌고래 종족’

워터루트로 돌아와 나는 본격적인 유니브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곳에는 하얀색 의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종족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던 나는 이 시기부터 하얀색 의복을 입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저 관찰과 기록을 하며 일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관찰은 커녕 종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부정하던 부모님께는 감히 내 생각을 꺼낼 수조차 없었다. 유니브에 입성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종족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 특히 내 종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너무나 컸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 유니브에서는 혹여나 나와 같은 종족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유니브에는 정말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다른 종족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엄밀히 말하면 못 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배려가 부족했다. 따라서 다툼도 많았고, 수많은 험담과 크고 작은 신경전이 가득했다. 특히 이종간에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가 좋지 않게 끝맺을 경우, 그 주변 종족까지도 모두 피해를 보는 처참한 광경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비열한 염소 종족, 허영심 넘치는 공작 종족을 겪으며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나는, 유니브 내에서 어떠한 종족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대부분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종족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쉽게 열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최대한 내 자신을 숙이고 대했다. 그러자 대부분은 나에게 경계를 풀었다.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는 생활이 지속되어 조금은 염증을 느끼던 나는,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니브 내 클럽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나와 정말 비슷한 종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야말로 짜릿한 순간이었다.



△ 돌고래 종족의 모습.

‘음악 연구회’ 라는 클럽에 속해있는 그들은 우선 생김새부터 나와 비슷했다. 체구가 크지 않았고, 외모로서 남들에게 두드러질 만한 특징이 없었다. 오히려 사회의 기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외모였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과도하게 돋보이지 않고 적응 할 수 있는 전천후의 장점을 가졌다. 성향은 나와 더욱 비슷했다. 앞서 언급했듯 나는 운동 능력보다는 언어 능력이 뛰어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두드러졌다. 그들 또한 나와 모든 면에서 비슷했다. 수준급의 이성을 지닌 종족을 처음 만났다고 느낀 나는 진정한 나의 자아를 드러내며 그들과 급속도로 친해졌다. 우리는 매일 밤 정치, 철학, 인문학, 음악 등 여러 분야에 이야기꽃을 피워나갔다. 나는 이제야 같은 종족을 찾아낸 듯 하였고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그들과 2년 정도 관계를 맺은 이후, 큰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내

가 발견한 종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 전 부모님이 그랬듯, 혹여나 이번에도 무시당하거나 괘시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야기하는 내내 몹시 떨렸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하던 그들은 격렬한 동의를 표했다. 심지어는 자신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굉장한 흥분상태에 이르러 그동안의 기록들을 몽땅 공유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내 이야기에 점점 흥미를 느꼈고, 내가 기록한 종족의 이름까지도 함께 정의해 주었다. '염소 종족' '공작새 종족' 따위의 이름도 그들과 정한 것이다. 심지어 우리 종족의 이름까지 함께 정하였는데, 영리하고 종족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며 바다와 땅에서 모두에서 적응하고 살아온 돌고래의 특징에서 착안해 '돌고래 종족'이라고 이름 붙였다.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내 온 마음과 시간을 다 바치며 지내던 나는, 어느새 그들에게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단초는 다름 아닌 그들의 오만함이었다. 그들은 분명 내가 만난 어떤 종족보다도 지능적으로 우수하고 사회성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점 때문에 본인의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짙었다. 내가 종족 개념을 알려주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종족들을 분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족간의 우열까지도 정해나갔다. 그리고 하안색 의복을 입는 자들은 본인들, 그러니까 돌고래 종족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점차 회의감이 들었다. 나에게 종족은 그저 분류 기준일 뿐, 우열의 대상은 아니었다. 분명 나 또한 어떤 종족은 미워하고 어떤 종족은 좋아하였지만, 이는 호불호의 문제일 뿐 우생학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의복의 색깔까지도 종족에 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느꼈다.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을 존경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도 혐오하는 염소 종족처럼 비열하게 그들을 뒤에서 헐뜯고 싶지는 않았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는 그들과 헤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때마침 그들 중 대부분이 유니브를 졸업하고 하안색 의복을 하사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또한 하안색 의복을 입을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돌고래 종족을 멀리하게 되었다.

마치며, 내 종족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돌고래 종족과도 멀어지고 난 이후, 나는 극도의 허무함에 빠져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 때부터 특정 종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종족에 대한 혐오감이 들기 시작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염소 종족, 허영심이 가득한 공작 종족, 오만함에 물들어버린 돌고래 종족, 이 모든 종족들이 나와는 달랐다. 그나마 나와 비슷하다고 느낀 돌고래 종족들은 결국 내 손으로 배척했다. 나는 그때 관찰을 시작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했다.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종족들에 대한 진절머리 때문에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그동안의 관찰 기록들을 모두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뒷산에 올라 모든 기록을 불태우려던 찰나, 지독한 나의 탐구본능이 나를 다시 한 번 자극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내 종족에 대해 알고 싶어진 것이다. 아직 나는 젊고, 내가 만날 종족은 무궁무진하다. 지금까지 만난 종족이 이 나라의 모든 종족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그렇게 미치자 나는 이 모든 기록을 세상에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나의 기록을 관찰기로 남겨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른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겠다고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관찰기를 보고 종족에 대한 탐구를 한다면, 결국에는 나와 같은 종족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이 관찰기를 적었다. 내 반 평생을 함께한 지독한 관찰의 여정을

이 안에 담아내었다. 어떤 이는 이 관찰기 전체를 부정할 것이고, 어떤 이는 조금 흥미를 느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울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관찰기에 단 하나의 허구도 섞지 않았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오랜 시간의 흐름에서 발생한 기억의 오차일 것이다.

관찰기를 다 작성한 지금, 나는 앞으로도 관찰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하얀색 의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종족에 대한 관찰은 일평생에 걸친 과제로 남겨 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 종족들은 모두 분명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비열함, 허영심, 오만함. 나는 마치 이 세 가지 악한 성향에서 멀어져 있는 듯 묘사했지만, 그들과 깊게 어울리고 융화되었던 내 자신에게 저들의 성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단점은 나의 모습을 비추며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종족을 관찰하며 나는 악한 성향을 언어화하고 경계하는 법을 배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속한 본래 종족의 특성에서도 점차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도 든다. 지금 나의 종족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인 상태이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더 많은 종족을 관찰할 것이고 비로소 나의 종족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들도 나의 길고 긴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0년 7월 2일.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저자 한창희